

K리그1 '울산' 선두 수성이나 '전북' 뒤집기나

‘승승장구’ 울산, 수원과의 15라운드서 비겨 격차 좁혀져
‘파죽지세’ 전북, 3연승 달리는 중...승점 차 1에 불과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에서 ‘현대’가의 선두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16라운드가 두 팀의 행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울산 현대와 전북현대는 오는 15일 각각 포항 스틸러스, 수원 삼성과 하나원큐 K리그1 2020 16라운드를 치른다. 1위 울산(11승3무1패 승점 36)과 2위 전북(11승2무2패 승점 35)의 승점 차는 1에 불과하다. 승승장구하던 울산이 8일 수원과의 15라운드에서 0-0으로 비기면서 격차가 좁혀졌다.

16라운드 이후 울산이 선두를 수성할지, 전북이 탈환할지 관전 포인트다. 울산은 중요한 길목에서 포항과 ‘동해안 Derby’를 펼친다. 5연승을 달리다가 수원을 상대로 주춤해 쫓기는 입장이다. 울산과 포항은 총 165차례 대결했다. 상대전적에선 포항이 61승50무54패로 근소하게 앞선다. 올 시즌 들어 두 번째 대결이다. 첫 번째 5라운드 승부에선 울산이 4-0 대승을 거뒀다. 독일 무대에서 컴백한 이청용이 멀티골

을 터뜨렸고, 득점 선두 주니오가 한 골을 보냈다. 김인성도 지원했다. ‘창대창’의 대결으로 묘사할 수 있다. 울산은 주니오(18골)를 중심으로 34골을 기록 중으로 K리그1 12개 구단 중 압도적인 득점 1위다. 포항이 28골로 뒤를 잇는다. 득점부진 2위 일류첸코(10골 5도움)를 비롯해 송민규(6골 2도움), 팔로세비치(4골 4도움)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이 날카롭다. 그러나 포항은 최근 3경기에서 2무1패로 승리가 없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선 울산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수원 원정을 떠나는 전북은 파죽지세라는 설명이 어울린다. 15라운드에서 대구FC를 2-0으로 꺾으

며 3연승을 달성했다. 시즌 초반 ‘다공(다치고 공격)’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리지 않는 침묵으로 고전했지만 여름 이적시장에서 구스타보, 모 바로우가 합류하면서 달라졌다. 승리한 3경기에서 7골을 몰아쳤다. 공격 루트의 다변화와 한층 강해진 골 결정력이 상승세의 동력이다. 특히 지난해 최우수선수(MVP) 김보경이 14라운드(1골), 15라운드(2골)에서 연속골을 터뜨려 살아났다. 지난해 35경기에서 13골 9도움을 기록했던 김보경은 13라운드까지 11경기에 출전해 공격포인트를 단 하나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구스타보, 바로우가 합류하면서 상대 수비가 분산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구스타보의 높이, 바로우의 스피드를 통

한 공격 전개가 위력적인데다 여기서 패배되는 루트가 다양해 수비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다. 김보경은 “우리 선수들은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연승중이고 계속 승리할 것이다”고 했다. 11위에 처져 있는 수원(3승5무7패 승점 14)은 개막전에서 전북에 0-1로 아쉽게 패했다. 안방에서 설욕할 수 있는 기회다. 올해 창단 25주년을 맞는 수원은 전북전에서 스페셜 유니폼을 착용한다. 관중입장이 최대 25%로 확대된 가운데 의지가 남다르다. 양상민은 “구단에 오래 몸담은 선수로서 25주년이라는 숫자가 크게 와 닿는다”며 “중요한 경기에서 기념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만큼 많은 팬들에게 승리로 선물을 하겠다”고 했다.

마에다, 빅리그 통산 50승 달성...시즌 3승·방어율 2.66

올해 WHIP, 0.72에 불과...‘좋은 컨디션’



마에다 겐타

메이저리그(MLB) 미네소타 트윈스의 일본인 투수 마에다 겐타(33)가 빅리그 통산 50승을 달성했다. 마에다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

신주 밀워키의 밀러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등판, 6⅓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5탈삼진 2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시즌 3승째(무패)를 올린 마에다는 메이저리그 통산 50승 고지를 밟았다. 마에다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2.66이다. 올해 WHIP(이닝당출루허용률)이 0.72에 불과할 정도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마에다는 지난해까지 LA 다저스에서 뛰었다. 마에다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활약했다. 마에다를 눈여겨본 미네소타는 유망주와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내주고 마에다를 영입했다. 미네소타에서 선발을 꿰찬 마에다는 노련한 투구로 미네소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마에다는 “50승을 기록한 것이 매우 기쁘다. 팀의 도움 덕분에 50승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더 많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미네소타는 15안타를 터뜨려 12-2로 대승을 거뒀다. 시즌 12승7패를 기록한 미네소타는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다.

KT 오태곤→SK 이흥구, 1대1 트레이드

‘포수 댄스 강화’ 위해

창단 첫 가을야구에 도전하는 KT 위즈가 SK 와이번스와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KT는 13일 “SK에 내야수 오태곤을 보내고 포수 이흥구를 받는 1대1 트레이드를 했다”고 밝혔다. 이흥구는 장종고와 단국대를 졸업, 2013년 KIA에 입단했다. 2017시즌에는 트레이드를 통해 SK 유

니폼을 입고 백업 포수로 활약해왔다. 올 시즌 23경기에서 타율 0.188(48타수 9안타) 1홈런 3타점을 기록했다. 통산 성적은 345경기 타율 0.220, 34홈런 114타점. 이승용 KT 단장은 “1군 포수 댄스 강화를 위해 즉시 전력감인 이흥구를 영입하게 됐다”며 “풍부한 경험과 경기운영 능력, 안정감 있는 수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장타력을 겸비한 공격형 포수로 팀 전력 향

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영입 배경을 밝혔다. 오태곤은 청원고를 졸업하고 2010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2017년 트레이드로 KT로 이적한 그는 올해 4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20(50타수 11안타), 5타점을 올렸다. 통산 648경기 타율 0.263, 39홈런 176타점을 기록했다. SK는 “내·외야 멀티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고, 장타력과 빠른 주력을 겸비한 오태곤을 영입하며 선수단 댄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맨유 이적 무산’ 산초 “도르트문트에서 뛰는 게 좋아”

맨유와 도르트문트 간 이적료 의견 차이로 이적 불발



제이든 산초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이적이 무산된 제이든 산초(잉글랜드)가 소속팀 보루시

아 도르트문트 잔류와 관련해 처음 입을 열었다. 산초는 13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

를 통해 “도르트문트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면서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했고, 그들과 함께 경기장에서 축구를 공유하는 게 즐겁다”라고 전했다. 2019~2020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32경기에서 17골 16도움으로 맹활약한 산초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맨유 이적이 유력했다. 그러나 맨유와 도르트문트 간 이적료 협상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이적이 무산됐다. 도르트문트가 지난 10일까지 데드라인을 정해 맨유를 압박했지만, 이날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미하일 초어크 도르트문트 단장은 최근 “산초는 내년에도 우리 선수”라며 잔류를 선언했다. 도르트문트 동료들도 산초의 잔류를 반겼다. 미드필더 악셀 비젤은 “그가 팀에 남아 행복하다. 산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서울 팬도 우리 팬이라고 임했으면”

내일 상승세의 서울로 원정 떠나는 상주...“주전들 체력 걱정”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상주 상주의 김태완 감독이 서울 원정을 앞두고 “(서울 팬도) 우리 팬들이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했으면 한다”고 선수들에게 주문했다. 상주와 서울은 오는 15일 오후 7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0 16라운드를 갖는다. 두 팀 모두 상승세다. 서울은 최용수 감독이 성적부진으로 물러난 이후 김호영 감독대행 체제에서 분위기를 다잡았다. 14라운드에서 성남FC(2-1), 15라운드에서 강원FC(2-0)를 연이어 잡았다. 8위로 올라섰다. 상주는 15라운드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2-0으로 꺾으면서 3경기 만에 승수를 추가했다. 김태완 상주 감독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칭찬밖에 해줄 말이 없다. 기대에 넘칠 정도로 정말 잘해주고 있다. 선수들이 더욱 신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주(승점 28)는 ‘현대’ 2강인 울산 현대(승점 36), 2위 전북 현대(승점 35)의 뒤를 이어 3위에 자리하고 있다. 상주는 지난 6월 서울과의 7라운드에서

김진혁의 결승골을 잘 지켜 1-0으로 승리했다. 김 감독은 “이겼지만 사실 전력은 비속했다고 본다”면서도 “그때보다 공격 조직력이 살아나고 있어서 2골 정도 득점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비도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해서 서울전에서 우리만의 즐겁고 재밌는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 전력에 대해선 “서울은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한다. 윤주태, 조영욱, 한승규를 비롯해 우리 골문을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들이 위협적이다”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막 이후 쭉 무관중 경기를 했던 K리그는 지난 1일부터 경기장 수용 규모의 10%를 상한선으로 관중 입장을 허용했다. 14일부터는 25%까지 확대한다. 최근 상승세를 탄 서울이기에 팬들의 기대감이 높다. 상주 입장에서 서울 원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김 감독은 “원정이기 때문에 서울 팬들의 응원이 많겠지만 서울 팬들의 응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선수들이 그들 또한 우리 팬들이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했으면 한다”며 “상대팀 팬이라고 해도 무관중보다는 팬들이 있는 게 낫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 걱정이다”면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선수들을 위주로 꾸려서 나갈 것이다.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들도 많고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할 것이다”고 했다.

호날두 연봉 443억원...피를로 감독의 17배

팀 두 번째 연봉 높은 ‘더 리호트’보다 4배 많아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소속팀인 이탈리아 프로 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매체 더선은 13일(한국시간) 유벤투스 선수단 연봉을 공개하면서 “호날두가 2800만 파운드(약 443억원)로 가장 많은 돈을 받는다”면서 “최근 지휘봉을 잡은 안드레아 피를로 감독의 17배”라고 전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거쳐 2018년 여름 유벤투스로 이적한 호날두는 지난 시즌 세리에A에서 31골(득점 2위)을 터뜨려 유벤투스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호날두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출신 수

비수 마테아스 더 리호트(720만 파운드)가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자랑했다. 또 곤살로 이과인, 미랄렘 피냐치(이상 670만 파운드), 파울로 디발라(650만 파운드), 아론 램지, 아드리안 라비오(이상 630만 파운드), 레오나르도 보누치(580만 파운드)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지난 9일 마우리시오 사리 전 감독 경질 후 유벤투스 지휘봉을 잡은 피를로 감독은 연봉 160만 파운드(약 24억원)를 받는다. 이날 공개한 유벤투스 1군 선수 22명 중 피를로 감독보다 연봉이 낮은 선수는 메리코 데미탈(160만 파운드), 잔루이지 부폰(130만 파운드), 카를로 핀소글리오(20만 파운드) 등 3명이다.